

전국 제일 '책의 도시'로 거듭난다

전주시 "매년 독서대전 개최할 것" 평가보고회서 발전방향 머리맞대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리에 치러내면서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로 인정받은 전주시가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대전을 해마다 열기로 했다.

전주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주최·주관·협력기관 관계자와 기획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순중 부시장 주재로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지속 개최될 (가칭) '전주 독서대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책과 독서문화 축제로, 올해 행사는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주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주 경기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개최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전주 독서대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시는 올해 독서대전을 성공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책과 독서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독서대전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독서대전에서 미처 선보이지 못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독서대전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전주를 대표하는 동문예술품거리 한책방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전주 독서대전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 구성, 민관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한 올해 독서대전은 연인원 2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만3000권의 도서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독서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 형성 및 독서문화 운동을 확산하는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방도시에서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출판관련 기관들의 적



전주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주최·주관·협력기관 관계자와 기획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순중 부시장 주재로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극적인 협조와 시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난해보다 14곳이 많은 80개 출판사가 참여했으며, 전국 독서단체는 물론 전북지역 독서동아리와 평생학습 단체 등 231개 단체 34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국민 독서문화 진흥에 일조 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행사기간 동안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관람객들은 행사 내용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대부분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박순중 부시장은 이날 "이번 독서대전은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서 전주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창출했다"면서 "인문학 도시로서 도시 전반에 걸쳐 독서문화를 창달하고 독서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부터는 '전주 독서대전'으로 개최, 전주를 전국 제일의 책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학생인권보장 3개년 종합계획 수립

20일 토론회서 정책적 요구·실행방안 등 논의

전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인권 실천계획, 무엇을 담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0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규정하는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 행정, 인권, 청소년, 사회복지 등 학생인권 관련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학생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발제는 임종근 서울잡일교 교장이 맡아 '학생인권 실천계획의 의의 및 수립 준비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임 교장은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TF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어 이승일 전북교육청 정책공보 담당관, 황재영 전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 최광락 백석초 교감, 장세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북지부장, 황지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인권실천계획 수립에 앞서 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실천계획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교수팀 '중증 천식' 전문서적 출간

진단부터 치료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전달

전북대학교 김소리·이용철 교수(의전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세계적인 전문서적 출판사에서 중증 천식 관련 전문 서적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소리·이용철 교수는 세계적 전문서적 출판사로 알려진 스프링거로부터 집필 제의를 받아 'Severe asthma: Toward Personalized Patient Management (ISBN 978-981-10-1997-5)'를 최근 펴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총 3개의 색션과 7장(하드 커버, 134 페이지)으로 구성된 의학 전문 서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연구자 및 학생, 수련의 등 천식 및 중증 천식에 관심 있는 다양한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 의학 연구 실험실 및 임상 현장에서 실제적 활용 가능한 최신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김소리·이용철 교수는 책임 편집자 및 저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담당했으며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의과대학에서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성호 교수가 함께 편집을 맡았다.

중증 천식은 최근 호흡기 및 알레르기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일반적인 천식과 달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치료반응을 보이지 않는 난치성 질환이다.

전북대 의전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연구팀은 이 분야에 대한 신약 개발 연구 및 병리 기전 발굴 등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선두 그룹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전북대 교수진의 오랜 기간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 등이 녹아 있다. 기초 의학 연구부터 실제 임상에서의 진단과 치료의 활용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때문에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다양한 직종의 임상 의사, 의학 관련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책은 현재 해외 도서 구매 사이트에서 선주문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올해 11월 말 정식 출간된다.

/정해은 기자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차기회장에 이종희 교수 선출

전북대학교 이종희 교수(대학원 BIN 융합공학과·사진)가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9일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2019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 사회 구축과 관련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종희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수소 연료전지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과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유소년 축구팀 육성 팔걸어

전북 유일 남자 실업축구팀인 전주 시민축구단이 유소년 축구팀을 육성한다.

15일 전주 시민축구단에 따르면 유소년 팀 육성에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이날 전북유나이티티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로 유소년 팀 육성에 협력하고, 순차적으로 완전한 통합에 들어간다.

특히 2018년 주말리그 참여를 목표로 U-18세 팀 창단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함께 전주 시민축구단은 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육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가동한다. 기존 12세 이하(U-12) 초등학교팀을 U-8, U-10, U-11, U-12로 세분화시켜 각각 연령층에 맞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시민축구단 관계자는 "누구나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보급반을 전주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전주를 축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와의 만남 -10.28(토) 호암 윤종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함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강암서예관	강암 송성용전